

내가 세상과  
대통하고 있었을  
때

● 권오걸

\*권오걸님은 1972년 서울 문리대 철학과에 입학하여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당했다가 1980년 복학하여 1982년에 졸업했다. 1979년 전예원, 실천문학사 편집장, 1982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역임했고, 1984년 제일기획 입사, PR팀, 프로모션팀 국장을 거쳐 2000년 퇴사한 후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몇년 전 다녀온 인도 여행에서 힌두인의 삶에 접하게 되면서 유달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 우리 인생에서 50세가 갖는 의미였다. 종교가 생활에 깊게 스며있는 힌두인들은 일생을 삼등 분하여 생각한다고들 한다.

태어나서 25년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 공부하고, 결혼하고, 이후 25년은 돈을 벌어 부인과 자식의 삶을 돌보고, 그리고 50세가 되어서는 자신을 위한 구도의 길을 떠나는 것을 그들은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어느새 쉰 살이 되면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마음으로 한 번쯤 인생의 과정을 반추하게 된다. 혹은 어느 날 홀연히 세속을 떠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

돌이켜보면 입학하여 2년여 다닌 내 대학시절은 내내 사회의 모순구조에 대한 비판과 이의 개선을 위한 현실적 참여운동이 생활과 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의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사회변혁에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했던 아학이나 학생운동에서 형성된 의식이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의 지표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 「오적」을 읽다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형성된 것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중고교 시절이었던 것 같다. 내가 다닌 광주서중에는 광주학생운동탑이 있는데 '우리는 피끓는 학생이다' 라는 문구를 보며 학생운

동의 전통에 자랑스러움을 막연히 느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노골적인 상징물이 한창 민감한 사춘기 소년들에게 암암리에 미쳤을 영향권 아래에서 저항정신은 학교 전체를 감싸고 있던 학풍의 기초였다.

혜세, 카뮈, 사르트르, 서양철학사 등을 읽고 있었던 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선배나 친구의 권유로 여기저기 서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억나는 것은 향토반 ‘광랑’과, 홍사단 아카데미, 영어회화서클인 YSM 등이다.

특히 향토반 ‘광랑’에 참여한 것은 나의 사회의식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광랑’은 61년에 창립한 농촌문제에 관심을 갖는 서클이었는데, 주로 독서모임을 하면서 여름방학에는 연탄 배달을 해서 번 돈으로 농촌봉사활동을 가는 것을 전통으로 했다.

방학 동안에 서울에서 내려온 선배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의 순수한 열정을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으로 이끌었다. 어떤 선배는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의 노래였던 〈We Shall Overcome〉을 가르치기도 했다. 일찍부터 싸수가 노렸던 것이다.

2학년 때 당시 『사상계』 5월호에 김지하의 「오적」이 발표되었는데, 향토반 모임에서 한 친구가 낭독을 한 것이 선생에 의해 고발되어 모임에 참석했던 모두가 경찰서에 연행되어 갔다. 반성문을 쓴 후 아버지의 보호 아래 훈방되긴 했지만, 이때 처음으로 빨갱이란 말을 들었다. 우리는 정당한데 이러한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이 반체제, 빨갱이란 한마디로 단죄해 버리는 체제에 대해 매우 답답하고 단절되어 있음을 경험한 최초의

사건이다.

## 철학은 사치품

1972년도에 들어온 대학은 한마디로 어수선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기만적인 남북대화를 전개하더니 장기집권의 마각을 드러내는 10월유신을 전격적으로 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하였다. 결국 우리의 대학생활은 박정희 독재정권 앞에서 자신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다.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감옥에 가느냐, 일상적인 학창시절을 보내어 체제 속으로 편입해 가느냐의 문제였던 것이다.

한편 내가 어린 시절을 지냈던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이농의 물결은 도시로 향해 갔으며,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어진 농민들은 저임금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렸다. 의사소통의 통로인 언론에는 재갈이 물려졌으며, 노동조합은 탄압되고, 지식인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체제에 대한 저항은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프란츠 파농, 본회퍼, 체 게바라 등에 심취해 있었고,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은 필독 잡지였다.

대학으로 이어진 ‘광랑’ 모임, 또 새로 가입한 기독교 서클인 ‘한마음’, 그리고 수시로 갖는 선배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정치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주요 테제였으며, 당면과제로서 학생운동과 노동자 농민을 위한 민중운동의 진장이 주로 논의되었다. 철학과에 입학한 놈에게 철

학은 손대어서는 안될 사치품이 되어 있었다.

대학에 들어와서, 꼭 운동이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내가 꽤 열심히 했던 활동은 야학이었다. 동대문 창신동의 낙산아파트 한 칸에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에서 주관했던 '밤공부터'가 있었다.

농촌에서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빈민들의 꼬방동네 판잣집들이 마치 서울이라는 거대한 배에 달라붙은 굴껍딱딱처럼 청계천 주변에 밀집해 있었는데, 창신동 일대도 그 중의 하나였다.

우리 야학에서는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아이들이 중등, 고등과정을 배웠다. 그들은 낮에는 저임금의 직장에 다니고, 밤에 학교에 나와 공부했다. 대부분이 대학생들인 선생들과의 나이 차이가 많지 않고, 또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현장에서 이를 해결해 보려는 마음이 서로들 잘 통했기 때문에 의기투합하여 끈질기게 공부하는 등 자주 어울렸다.

한번은 동대문 근처에서 밤에 학생 모집 포스터를 전신주에 붙이고 있었다. 웬 낯선 두 사람이 다가와 무엇 하느냐고 물어서, 야학 포스터를 붙인다고 하니까 잠깐 따라오라는 것이었다.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동대문경찰서였다. 불법유인물 부착이었다.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독심 즉심으로 넘겨졌다.

다음 날 아침 판사가 간단한 사실 확인과 함께 판결을 내렸다. 돈이 목적이 아닌 야학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약국이나 불법 피아노 교습소 등과 동일한 수준에서 당시 즉심 최고벌금형인 5천원이 떨어졌고, 벌금을 못낼 경우 구류 7일을

병과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한 작은 선행이 다른 무  
히가 경제사범들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  
지만 우스꽝스럽기도 했다.

돈이 없어서 나는 구류를 살기로 작정했다. 통금 위반으로  
들어온 술주정뱅이들이 대부분인 경범 유치장에 하릴없이 일주  
일을 있자니 무료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배가 고팠다. 호주머  
니에 겨우 남아 있는 동전 몇 개로 빵 두 개를 사 수돗물과 같이  
먹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  
게 연락이 닿았는지 도시문제연구소 목사님 등 몇 분이 찾아온  
것이였다.

벌금을 물고 나오면서 그들은 내게 고생했다며 위로하려 했  
다. 그런데 내 입에서 부지불식간 나온 첫마디는 “위매, 연탄불  
꺼져 버렸잖네!” 였다. 나는 그때서야 차갑게 식어 있을 내 자취  
방이 생각난 것이였다. 연탄불 꺼진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야  
학에서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었다..

## 야학 폐다고지

2학년 때는 서대문 현저동 금화아파트로 옮겨 야학을 계속했  
다. 역시 도시 빈민층 밀집 지역이였다. 장소는 금화교회를 섭외해  
서 잡게 되었는데, 교장은 목사님이 하고 나는 교감을 맡게 되었  
다. 학과는 역시 정규 학교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였다.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졸업하고 정규 학교에 다니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 역  
시 야학을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야학의 목적이 무엇  
이냐였다. 당시 토론의 주제는 정규 교과과목을 가르치면서 몇  
사람을 검정고시에 합격시켜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해 가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였다. 이론적 배경이 된 것은 『페다고  
지』, 『학교는 죽었다』와 필리핀 가톨릭의 민중조직화론이었다.

결론은 사회 구조적 모순의 중심에 있는 소외계급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났  
다. 야학도 자원봉사의 시혜적 개념이 경계시되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선생과 다툰 적이 있었다.  
그녀는 미대에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눈이 오는 날 언덕길을 올  
라오느라고 고생을 했던 모양이다. 교무실 문을 들어서며 “아휴,  
힘들어. 이런 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하고 무심코 던  
졌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사람들 사는  
여기가 어떻단 말이오?” 하고 울대를 좀 높였다.

본인은 자원봉사라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원봉  
사를 받는 대상자와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차별화하는, 가진 자의  
대표적 위선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러기에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만두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 날로 그  
만두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빈농이나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야학  
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청계천 똑방 활  
빈교회 등과 접촉을 하다가 3학년을 맞게 되었고, 4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고 학교는 제적당했다.

출감한 후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전선을 전전하고 있는 중에

도 나는 야학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었는데, 78년도에 공단에서 하는 야학이 있다고 기독교쪽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가리봉 공단 내에 있는 ‘백합’이라는 야학으로 기독교선교도 겸하고 있는 장모라는 사람이 교장이었다. 나는 국어와 교무주임을 맡기로 했다. 주로 공단 노동자들이 학생이었고, 숫자도 100여 명을 넘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여기도 역시 검정고시 위주의 정규과정 수업을 했는데 예배시간도 있었다.

선생들은 대학생들과 사회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물론 무료봉사였다. 나는 먼저 교육과정의 체계도 잡고, 아는 사람들을 선생으로 영입도 하고, 학생회 구성도 하는 등 꽤 재미있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체를 파악해 보니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일반 학원과 다름없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서도 입회비로 1만 2천원, 월회비로 1만 원 정도 받고 있질 않는가. 당시 그들의 월급은 3만 5천원 정도였다.

한 여학생은 월급에서 시골 부모님께 돈도 부치고 적금도 들면서 야학을 다니는데, 월 용돈이 5백 원인 경우도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기독교 선교 목적이라는 외피를 쓰고 자원봉사 선생님들로부터는 무료로 봉사받고 있는 사기성 야학임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입회비를 6천원 인상한다고 하여 반발이 일어났다. 동조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규합하여 인상반대를 주장하자 교장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학교를 휴교해 버렸고, 현장에 모인 우리측과 교장측은 몸싸움을 벌인 후 헤어졌다.

갈 곳을 잃은 우리는 이틀 후 관악산에서 모였다. 50여 명이



나왔다. 집회를 끝내고 몇몇 핵심 멤버끼리 다시 가리봉동에 돌아와 그 당시 자주 갔던 감자탕 집에서 술을 마셨다. 주인아저씨는 우리가 가면 돈이 없어 적게 시키는데도 항상 잘 고아진 뼈를 듬뿍 주곤 하던 고마운 분이였다.

그 날 우리는 돼지 뼈다귀가 어지럽게 쌓인 술자리에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렸다. 배움의 길을 열어달라는 그 절실한 기원이 어찌나 가슴에 와 닿는지 모두들 철철 울면서 기도했다. 뒤에 주인 아저씨는 튀김을 사러온 아가씨가 밖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 있었다고 전해 주었다. 그후 모임으로 발전시켜 독서회와 노동법 공부를 했는데, 그때의 학생들은 지금도 가끔 만나곤 한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당시 현장에 참여하는 지식인들이 안고 있는 허위의식에 대한 날카로운 각성을 던져주었다. 자원봉사의 차원을 넘어서기는 했지만, 내가 그들이 될 수 있는가, 같은 월급과 생활환경에서 동화된 의식으로 진정한 조직운동가로서 다시 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했었다.

나는 솔직하게 그들에게 내 한계를 말했으며, 이제는 그들의 문제를 그들 중에서 도출하고 해결해가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한때는 학생들 중 한 사람과 결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나는 결국 지식인으로서 주어진 조건을 향유하기 위해 나의 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 때문에 지금도 당시 현장운동가로 투신한 분들에게 마음의 부채감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 긴 밤 지새우고

내 경우 학생운동은 주로 고교 선배 동료들과의 어울림에서 발전되었다. 문리대 선배, 동료들과의 모임은 막걸리 집에서 하숙집으로, 자취방으로, 여관으로 옮겨가 밤샘 토론을 하기가 일쑤였다. 막걸리, 때로는 소주를 마시며 지독히 괴워대는 담배연기 속에서 새벽까지 앉은 양반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허기가 질 때에는 식빵 몇 조각으로 때우곤 했다.

토론은 주로 학생운동의 방향과 조직화문제, 노동자 농민과의 연대 및 조직화, 통일의 전망과 방법, 동북아 정세, 후진국 경제론, 원조, 종속경제, 매관, 재벌경제, 민족사관, 친일잔재 척결, 민족민중문화 등 광범위했다. 기독교 모임에서는 주로 예수의 존재 및 의미, 신앙의 기독성, 민중, 해방신학, 사회개발론 등이 주제가 되었다.

토론하고 술 마시고 하다 보면 또한 노래가 아니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당시 우리가 돌아가면서 부른 노래란 〈아침이슬〉로 시작해서 〈금관의 예수〉, 〈부용산〉, 〈백치 아다다〉, 〈스텐카라진〉, 〈우리는 정의파다〉 등으로 끝나는 뻘한 레퍼토리였다. 그러나 때로는 울면서 부른 그 노래들 속에서 우리는 젊은 날의 절망감과 함께 동지의식이 마음속에 퍼지는 충만감을 느끼곤 했다.

10월유신과 함께 휴교령으로 강타당한 학원은 겨울과 함께 퐁퐁 얼어붙었다. 그러나 권력을 공고화하는 그 조치는 바로 박정희 독재의 몰락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73년 신학기와 더불어 다시 다니게 된 학교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서

서히 저항의 움직임이 움트고 있었고, 문리대 학생회가 구성되면 서 유신에 반대하는 데모 준비가 이루어졌다.

문리대 학생회의 주도로 최초의 유신반대 데모가 10월 2일 문리대 교정에서 일어났다. 4·19 기념탑 앞에서 처음 50명 정도가 집결하여 선언문이 낭독되고, 이어 스크림을 짜고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교내를 돌기 시작했다. 교내를 도는 동안 데모대는 점점 불어나 나중에는 500명을 넘어섰다. 문리대 사상 최대 규모라고 했다.

나는 대오 앞쪽에서 신나게 돌았다. 옆에는 고아석, 황지우, 최권행, 정해일의 모습들이 보였다. 우리가 서로의 어깨를 짜고 만든 그 대오는 독재에 침윤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 비로소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한 해방공간이었다.

그러는 사이 경찰이 집결하여 교문을 막았다. 교문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경찰과 대치, 연좌농성을 벌이면서 구호를 외쳤다. 정보 파쇼통치 중단, 언론자유, 국민생존권 보장, 중앙정보부 해체 등으로 기억된다. 교문 너머로 언론사뿐만 아니라 정보 프락치들이 무수히 사진을 찍어댔다.

두어 시간이 지나 경찰이 난입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도서관 쪽으로, 강의실로, 혹은 담을 넘어 '세느' 강으로 빠지면서 피해 달아났다. 이수라장이었다. 나는 도서관 쪽으로 달리다가 신발이 벗겨져 다시 신으려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도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던지 검거에서 비껴갔다.

이날 검거되어 구속 수감되었다가 강집되어 군대에 가게 된 황지우 선배는 경찰서에서 내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불으라고 해

서 혼났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려주기도 했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최초의 문리대 시위는 요원의 불씨가 되어 전국 학원가로 퍼져갔고, 다시 저항의 열기가 끓어올랐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당황하여 학생 구속이라는 강압적인 대처를 해갔으나 한번 번지기 시작한 불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 74년 봄 하늘에 흩뿌려진 유인물

어수선한 가운데 겨울방학이 되고, 나는 방학을 광주에서 보내게 되었다. 광주에서 선배 동료들과 거의 매일 만나 시국토론을 했다. 자주 모였던 곳이 '선미집'이라는 막걸리 집으로, 저녁에 나가보면 동료들이 꼭 한 두 팀은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12월 어느 날 태국에서 학생 데모로 타놈 독재정권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우리도 곧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연스럽게 전국적 규모의 학생 데모가 일어나야 된다는 데에 모두 공감했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국조직화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겨울에서부터 74년 신학기까지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저항 운동의 준비가 이철, 유인태, 나병식 등 선배들을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문리대 앞의 학림이나 튀김집, 그리고 명륜동 창현교회에서 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3월 중순 들어 언어학과의 정찬용 선배와 불문과 최권행, 그리고 내가 한 조가 되었다. 유인물 제작 담당이었다. 우리는 3월

하순 경에 변두리 동네인 방학동에 방을 하나 얻어 등사기 등 유인물 제작시설을 갖추어 놓고 시위에 대비했었는데, 말하자면 비트(비밀아지트)였다.

4월 3일을 D데이로 하여 종로와 청계천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예정되었다. 대규모 학생시위가 일어나면 노동자, 시민, 상인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매우 낭만적인 계획이었다. 정작 그 날이 되자 곳곳에는 경찰의 경비가 삼엄하여 삼삼오오 모여든 학생들은 집단시위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름의 유인물과 「민중의 소리」가 뿌려졌을 뿐이었다.

한편 박정희는 4월 3일을 기해 민청학련 관련 활동금지를 골자로 하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검거작업에 들어갔다. 이철, 유인태, 강구철 3인에게 현상금 2백만 원이 걸린 수배 전단이 도처에 붙었는데, 당시 간첩의 현상금이 1백만 원이었으니까 잡히면 사형이라는 것이 괜히 보일 정도로 정말 살벌했다. 지금 생각하면 국민을 겁주는 파쇼의 공포정치가 한판 벌인 코미디의 극치였다.

바로 검거되지 않은 우리는 유인물 살포계획을 다시 세웠다. 4월 10일 경 찬용 형이 강구철을 데리고 와 같이 지내게 되었다. 15일 경 「반민족 부패족벌 파쇼집단에게 고한다」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5백여 장 만들었다. 당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불고 있어서 거리에서는 검문 검색이 심하였으나 잡히면 툭 각오로 추진해 나갔다.

사전답사를 한 후 인파가 많은 곳인 명동 '레드 옥스'라는 맥주집 2층을 선택했다. 강구철은 잡히면 안되니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담뱃불을 던지면 최권행과 내가 뿌리기로 했다. 지문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접착제를 손가락에 바르는 트릭도 썼다.

저녁 7시 경 강구철이 골목 입구에서 긴장된 모습으로 담뱃불을 던지자 우리는 일시에 유인물을 공중에 뿌렸다. 흩어져 내리는 유인물을 바라보며 입구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뭐야 뭐야 하며 주워서 읽어보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서둘러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을 오면서 남은 유인물도 무더기 무더기로 모두 처리했다.

이런 와중에서 학교 수업은 계속 나갔다. 4월 20일 경 오후 수업이 끝난 후 모르는 두 사람이 다가와 내 이름을 묻자, 그렇다고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왔는데 간단히 조사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광주에서 웬일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동행을 했는데, 기차를 탈 때 보니까 고교 동기인 법대 김이수, 한신대 최연석 등도 같이 와 있었다. 서부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으면서 지난 겨울 광주에서 모임을 가졌던 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도청 앞 대공분실로 넘어가 3차에 걸쳐 조서를 썼는데, 훈방으로 분류되어 석방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분위기가 수상하다 싶더니 나를 불러 윤옥식을 아느냐고 물으며 조서를 다시 써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썼다. 하루 뒤 다시 정찬용을 아느냐고 물었다. 계속 드러나는 서울 건으로 정신없이 머리를 굴려 앞뒤를 짜 맞추며 조서를 다시 쓰고 있는데, 강구철이가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철과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대공분실 분위기가 삼시간에 살벌해졌다. 그들은 내가 진작 불었더라면 강구철을 잡아 2계급 특진도 하고 상금도 탈 수 있었는데, 나한테 속은 것에 분해했다. 실장이란 자가 맛 좀 보여주겠다며 별도의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자는 내 무릎 뒤에 각목을 집어넣고 꿰어앉게 하더니 몽둥이로 무차별 난타를 하고, 구둣발로 무릎을 짓이기고, 또 난타를 하고…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픈 소리를 안 냈더니 독종이라고 하면서 더 씩씩거리며 때리고… 여하튼 1시간 여 동안 줄창나게 맞은 것 같았다. 한 순간 정신이 멍한 상태로 옆으로 쓰러지자 그때야 그쳤다. 한참 있다가 친구들 있는 방으로 돌려보내졌는데, 그들을 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4월 30일, 나만 떨어져 형사 두 명의 호송으로 기차 편으로 치안본부로 압송되었다. 그들은 그 사이 정이 들었는지, 학생 신분으로 박정희 독재에 항거한 것에 심정적으로 동조한 건지 압송되는 동안 포승만 하고 수갑은 채우지 않았었다. 치안본부로 들어가려 할 때는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면서 수갑을 채웠다.

광주 형사들은 나를 인계한 후 몸조심하라고 하며 돌아갔다. 나는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신분확인 후 바로 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악명 높던 남산분실로 이송되었다.

철 대문이 열리고 건물에 들어서니 축 늘어진 사람이 코를 흘쩍거리며 수사관과 함께 내 앞을 지나갔다. 순간 물고문, 전기

고문이 생각나 몸서리가 쳐졌으나 묘하게 호기심도 일어났다. 각 방에서는 악악대는 소리와 수사관들의 고탐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곧바로 취조가 시작되었다. 잠 안 재우기, 주먹으로 얼굴 때리기, 각목을 다리 사이에 넣고 짓밟기, 몽둥이 구타, 원산폭격 등 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몰고가기를 거부할 때 어김없이 가해졌다. 가장 힘든 건 잠을 못자는 것이었다.

전국적 규모의 폭력 데모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느냐가 관건이었다. 나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체포되었으므로 사건의 기본적인 골격은 짜 맞춘 뒤 사실들을 확인 보완하는 수사단계여서 비교적 수월하게 취조를 받았던 것 같다. 또 잠을 못 잔 몽롱한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대충 조서를 꾸며주기도 했다.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구치소로 송치되었다. 송치 직전 수사관이 나더러 끝으로 한마디 해보라고 주문했다. 창 밖을 보니 마침 퇴계로쪽으로 열리는 아침 서울거리가 안개에 싸여 있었다. 나는 서울거리가 참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했다.

## 감옥, 만상의 몸짓과 교감한 도량

서울구치소(서대문)에 들어가니 수의로 갈아입히고, 플라스틱 식기 2개, 대나무 젓가락, 검정고무신을 주었다. 10사상 36방, 2평 정도 되는 독방에 배정되었다. 방에 들어서자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간수의 제지로 잠도 더 자지 못하고 식구통으로 가다



밥, 흙이 서걱서걱 씹히는 오경찬이 들어왔는데, 냄새가 나고 식욕도 없어 먹을 수가 없었다.

하루가 지나자 주변이 파악되기 시작했다. 옆방에 성경을 부탁했는데 국사범이라고 통방이 금지되어 빌려주지 않았다. 3, 4일 쯤 지나자 잠자는 동안 무언가가 물기 시작했는데, 잠고 보니 빈대였다. 점점 더 빈대의 숫자는 늘어나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일제 때 통나무로 만든 감옥문 틈새가 빈대의 소굴이었다.

빈대란 놈은 행동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순식간에 손가락으로 눌러 죽여야 한다. 밤만 되면 빈대 잡는 게 일이었다. 하루 저녁은 작정을 하고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수를 세었는데 새벽까지 170 마리나 잡았다.

빈대를 피해 뽕끼통(변기통)과 물통을 가지런히 놓은 후 그 위에 변기통 가리막을 놓은 간이침대를 만들어 자기도 했는데, 몸을 뒤채다가 굴러 떨어져 그만 변기통 오물이 옆질러지고 말았다. 내 몸에서 나온 그 오물을 걸레로 훑쳐내고 있자니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구치소 담장 너머로는 내가 야학을 했던 금화아파트가 있었다. 그쪽에서 이따금씩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아이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시작된 감옥생활은 초기에는 속박감과 단절감, 배고픔으로 정말 견디기 힘들었으나 차츰 익숙해지자 독서, 요가, 명상 등으로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어지기까지 했다. 감옥 안에 있으니까 옳은 일을 하고 고생한다는 자부심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신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독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과 『전환시대의 논리』, 『인간이란 동물』 등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자연변화, 사물에 대한 관찰이 재미있는 소일거리였다. 하루해가 뜨고 저물어 어두워질 때까지의 색깔의 변화, 계절이 바뀌에 따라 나무의 새순이 자라고 꽃이 피어나고 지는 모습, 새, 벌레의 울음소리, 만상의 몸짓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감동으로 와 닿곤 했다.

8월 초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나는 15년의 형을 받고 0.87평 짜리 독방으로 다시 옮겨졌다. 벽과 벽 사이가 1미터 정도밖에 안돼 팔을 앞으로 뻗을 수도 없었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관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등군법회의에서는 12년, 관할관 확인에서 10년을 받았다.

민청학련 사건은 사형에서부터 무기징역, 20년 등 뺑뺑이 형이 많아 그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일제 때 독립투사들도 이런 형을 받은 적이 없었다. 대부분이 이듬해 다 풀려났으니까 박정권이 얼마나 이성을 잃고 국민을 무시하고 겁주기를 무모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었다.

2심이 끝난 후 10월 안양교도소로 옮겼다. 민청 관련자 대부분이 집결했던 안양교도소는 해방공간이었다. 저녁식사 후 통방은 물론 돌아가면서 노래까지 열창하는 날도 있었다. 우리들 일부는 여기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박정희 독재의 시녀가 되어 있는 대법원을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를 지켜내는 최고 보루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형이 10년으로 확정된 후 전주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윤강

옥, 이학영과 함께 갔다. 전주에서는 정말 편한 생활을 했다. 자장면도 시켜 먹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광주에서 빨갱이란 얘기에 망연자실해 있다가 비로소 면회를 온 어머니와 누이동생도 볼 수 있었다.

75년 들어 정치적으로 유화 분위기가 돌았고, 우리들에 대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교도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직 해야 할 독서도 더 있고, 마음의 정리도 필요해 한 2, 3개월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2월 15일 가석방으로 출감했다.

## 소금과 고기

별로 화려하지도 않은 내 대학시절의 에피소드에 대해 장황하게 쓴 것 같다.

순수와 열정으로 뭉쳐진 그 시절의 그 경험들은 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감옥에서의 가장 최소한의 생활조건에 대한 경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더라도 자신감과 여유를 갖게 해 주었다.

출감 이후 생활은 참 어려웠다.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잡지 못하고 생계유지에 급급한 생활을 하다가, 또 복학, 졸업 후 들어간 직장에서도 신원조회에 걸려 쫓겨나고 하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80년대 중반이 되어 기업체에 몸을 담아 비로소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계속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지속해 가지 못한 아쉬움

이 남는다. 그러나 운동집단이 아닌 일반 사회조직 속에서 학생 시절의 뜻을 실현, 확산해 가는 것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몫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지내왔다. 운동이 소금의 역할이라면 사회현장조직은 고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을 겪은 학생시절에서 얻은 나의 자산은 두 가지 인 것 같다. 현실을 항상 혁신시키려는 의지와 도덕성이라고 생각 된다.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조직도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데, 내가 몸담았던 조직에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시도를 지속해 왔다.

기업조직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곧 발전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력, 조직, 지식 시스템 등의 모든 부문이 혁신되지 않고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는 조직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거래처에서 금품 제공 등의 비정상적인 접촉을 시도해 왔을 때도 나를 잡아맨 것은 내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하는 의식이었다. 한번 물들게 되면 불감증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자존심은 나를 지켜 줄 수 있었고, 중심을 갖게 해 주었다.

힌두인의 삶처럼 현존하는 세상과 다른 무엇을 찾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 개체로서의 단절감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무언가 현상적인 삶의 너머에 존재하리라고 생각되는 것, 그 존재와의 통합과 합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운동을 했던 것도 무엇인가 우리의 얘기가 통하지 않는 사회

에서 다른 사람, 다른 집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었던가. 운동은 자기 하나, 자기 주변 집단만의 삶이 아닌 다른 개체에 대한 관심, 넓은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또 하나의 자기라는 의식이 형성될 때 시발된다.

지금까지는 현존하는 삶에서 '통합'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우주적 실체와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시기에 선 것 같다.

